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 역사적 기억의 제도화와 현대적 실천에 관한 심층 연구 보고서

1. 서론: 기억의 투쟁과 시민사회의 역할

국가의 정체성은 과거의 집단적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고 재해석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서 3.1 운동과 유관순 열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민족의 자주성과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기표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상징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끊임없이 호명하고 현대적 가치로 재맥락화하는 주체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남도 천안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이하 사업회)'*****의 존재는 각별한 사회학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본 보고서는 2005년 설립 이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사업회의 조직, 활동,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제공된 실증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단체가 단순한 추모 조직을 넘어, 서훈 등급 상향과 같은 법적·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압력 단체(Pressure Group)로서의 기능, 그리고 웅변대회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민족 정신을 세계 보편의 가치로 확장하려는 교육·문화 단체로서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사업회의 설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조직 변천사, 주요 리더십의 특성, 핵심 목적 사업의 성과 분석, 그리고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 인물을 매개로 한 시민 운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지속 가능성과 담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조직의 기원과 리더십의 진화: 설립에서 확장까지

2.1 설립의 배경과 초기 리더십의 기반 (2005~2019)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의 역사적 뿌리는 200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¹ 2000년대 초반은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 청산과 민족 정기 선양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천안을 중심으로, 열사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교육할 상설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다. 설립 이후 약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직의 기틀을 다진 것은 박인숙 명예회장이었다.¹

박인숙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은 조직의 '인큐베이팅'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 신생 시민단체가 겪는 재정적, 인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관순 정신 계승'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연례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박인숙 회장은 2019년 말 열린 송년회에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강조하며, 사업회의 활동이 청소년과 국민에게 삶의 좌표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소회를 밝혔다.² 이는 초기 리더십이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사명감을 심어주는 데 집중했음을 시사한다.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사업회는 2020년경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¹

2.2 리더십의 전환과 도약: 정승택 회장 체제

2019년을 기점으로 사업회는 정승택 회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질적인 도약을 맞이한다. 평택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 출신의 정승택 회장은 학술적 전문성과 폭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조직의 외연 확장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² 정 회장의 리더십은 '전통의 현대화'와 '활동의 다각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높은 뜻"을 강조하며,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창출에 방점을 두었다.¹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승택 회장이 주도한 이사회 구성의 상징성이다. 그는 '33인 이사 위촉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는 1919년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전략적 기획이었다.¹ 이는 단순한 인원 채우기가 아니라, 사업회 이사 한 명 한 명이 민족대표의 정신을 계승하는 주체라는 정통성과 사명감을 부여하는 고도의 상징 정치(Symbolic Politics)라 할 수 있다.

2.3 조직 거버넌스의 체계화와 분업화

현대 시민단체로서 사업회의 역량은 정교하게 설계된 조직도에서 드러난다. 단순한 친목 모임과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기능별로 세분화된 분과위원회 시스템이다. 연구 자료¹에 따르면, 사업회는 정승택 회장을 필두로 박인숙 명예회장, 그리고 정준갑, 김옥환, 최옥분, 이정구 등 다수의 부회장단을 두어 조직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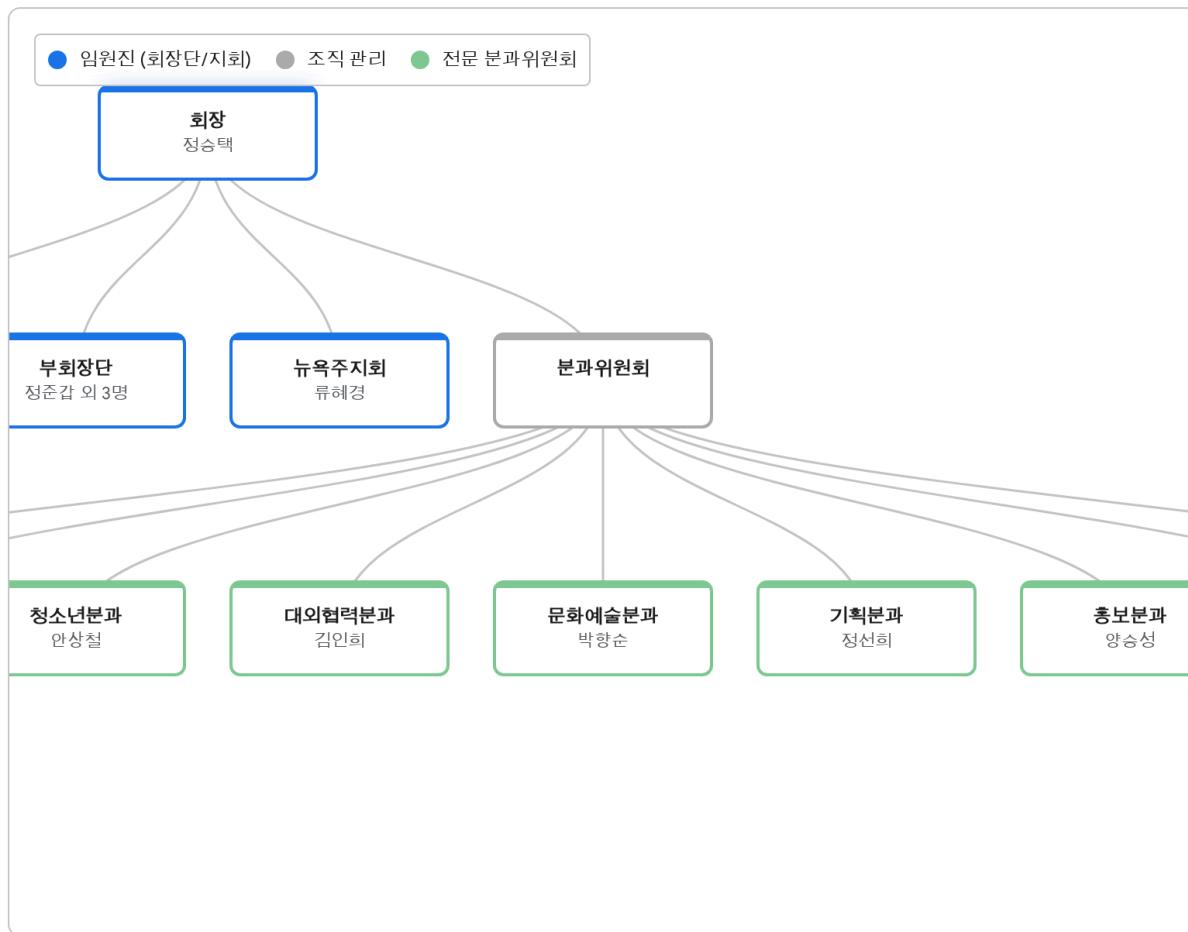
실무 조직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위원장들이 이끌고 있다.

- **학술교육분과:** 유인순 위원장이 이끌며 박난옥, 이영주 위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유관순 정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봉사분과:** 이윤표 위원장과 홍희선, 문미자 위원은 지역 사회 내에서의 실천적 봉사를 통해 열사의 '섬김'과 '희생' 정신을 현대적으로 구현한다.
- **청소년분과:** 안상철 위원장과 이광석, 김금순 위원은 사업회의 핵심 타깃인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웅변대회 및 각종 캠페인을 전담한다. 특히 김금순 위원은 총무이사직을 겸하며 대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파악된다.⁴
- **대외협력분과:** 김인희 위원장과 이문배, 박순용 위원은 지자체 및 타 단체와의 연대를 조율한다.
- **문화예술분과:** 박향순 위원장과 육영삼, 이은영 위원은 예술단 운영 등을 통해 딱딱할 수 있는 애국 계몽 운동에 문화적 색채를 입힌다.
- **기획/재무/홍보/회원분과:** 정선희(기획), 이경희(재무), 양승성(홍보), 변영현(회원) 위원장 등이 각기 전문화된 영역을 맡아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사업회가 특정 이벤트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조직이 아니라,

상시적인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방증한다.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 조직 및 분과 구조



사업회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학술, 농사, 청소년, 문화예술 등 전문화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주지회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Data sources: [M News](#)

3. 핵심 목적 사업의 전개와 사회적 영향력

사업회의 활동은 단순한 추모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 제도 개선 운동, 국제 교류 등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유관순 정신을 '박제된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현재의 가치'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3.1 유관순애국청소년전국웅변대회: 스피치(Speech)를 통한 정신의 내면화

사업회의 가장 대표적인 연례 사업은 '유관순애국청소년전국웅변대회'이다. 이 대회는 2024년 기준 22회째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청소년 스피치 대회로 자리 잡았다.⁴ 웅변대회의 지속성은 이 조직의 실행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이다.

- 대회의 역사성: 17회(2019년), 18회(2020년), 19회(2021년), 21회(2023년), 22회(2024년) 등 매년 끊임없이 개최되어 왔다.¹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중단 없이 대회를 치러낸 점은 사업회가 이 행사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 교육적 메커니즘: 웅변은 참가자가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언어로 논리를 구성하여 대중 앞에서 발화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청소년들은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사상을 웅변 원고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을 내면화(Internalization)하게 된다. 21회 대회에서 아산북수초등학교 김효은 학생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라는 주제로 대상을 수상한 것이나⁵, 19회 대회에서 보령중 김서효, 병천초 윤지호 학생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³는 이 대회가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임을 보여준다.
- 정부 및 지자체의 후원: 이 대회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등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다.⁶ 이는 대회의 공신력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사업회의 활동이 국가적 차원의 보훈 정책 및 청소년 교육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장소의 장소성(Place-ness): 대회는 주로 '독립기념관 내 겨레누리관'¹이나 '아우내 체육관'⁵에서 개최된다.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외쳤던 아우내 장터 인근과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개최는 참가자들에게 강력한 현장감과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3.2 서훈 등급 상향 운동: 역사적 정의의 실현

사업회의 활동 중 가장 사회변혁적 성격이짙은 것은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 운동'이다. 2019년 이전까지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은 3등급(독립장)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열사의 국민적 인지도와 상징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대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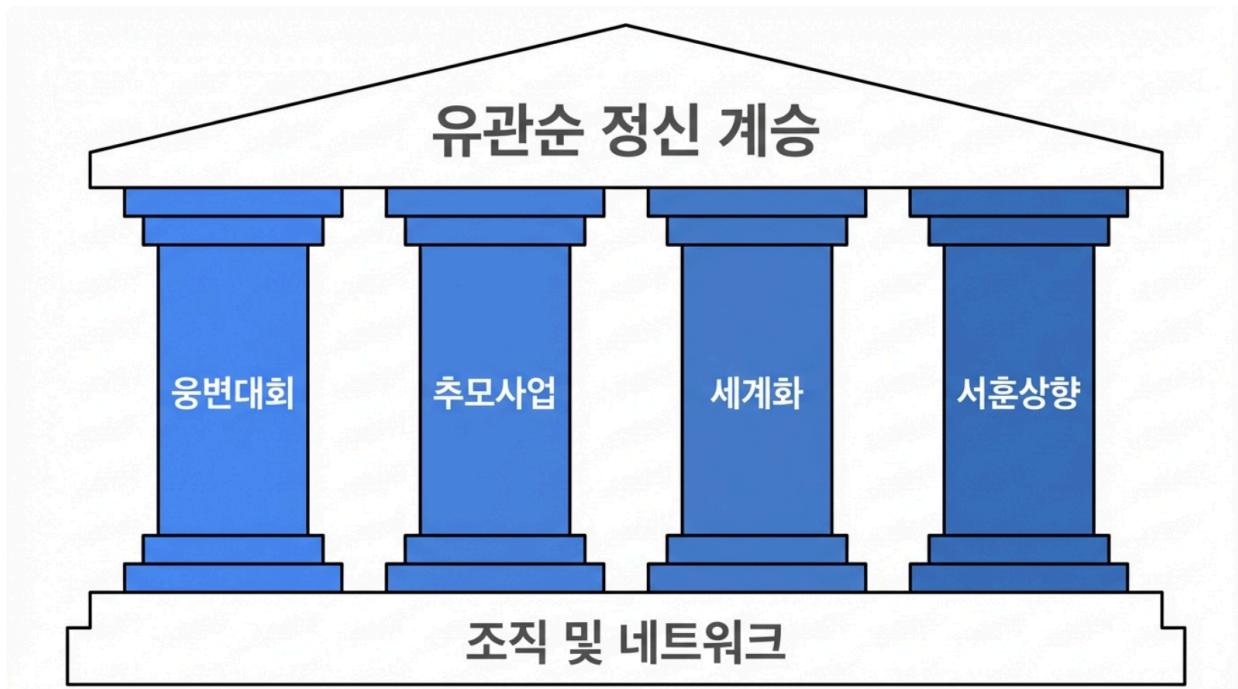
사업회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유관순열사 서훈상향 상훈법 개정촉구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범국민적 서명 운동을 주도하였다.²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정치권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업회는 이를 기념하여 '제1회 유관순서품1등급추서기념국민대축제'를 개최하였다.² 이는 시민단체의 끈질긴 옹호 활동(Advocacy)이 국가의 보훈 체계를 변화시키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3.3 의례와 상징의 재생산: 추모제와 기념식수

기억은 의례(Ritual)를 통해 강화된다. 사업회는 정기적인 추모각 참배와 현화 분향 외에도 '생가 기념식수'와 같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 추모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¹ 병천 유관순 사적관리소

내 동상 앞에서 거행된 33인 이사 위촉식과 이어진 무궁화 3그루 식수 행사는, 열사의 정신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무궁화처럼 끈질긴 생명력으로 현재에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례는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정체성을 재확인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엄숙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로 기능한다.

유관순 정신 계승을 위한 4대 전략적 활동



사업회는 교육(웅변대회), 추모(기념식), 확산(세계화/지부), 옹호(서훈 상향)라는 4가지 핵심 축을 통해 유관순 정신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4. 로컬리티를 넘어 글로벌로: 유관순 정신의 세계화 전략

본 연구에서 가장 흥미롭게 관찰된 지점은 사업회가 '유관순'이라는 지극히 한국적이고 민족적인 아이콘을 '세계화(Globalization)'의 문법으로 번역하려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민족주의적 상징이 어떻게 생존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4.1 언어 장벽의 해체: 영어 웅변대회(English Speech Contest)

사업회가 주최하는 웅변대회는 한국어 부문뿐만 아니라 ***영어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¹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다. 참가 학생들은 유관순 열사의 저항 정신과 평화 사상을 영어로 번역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유관순을 '한국의 독립투사'를 넘어 '세계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재해석하게 된다.

실제로 19회 대회에서 윤지호(천안병천초 5), 정재훈(논산연무고 1) 학생 등이 영어 부문 최우수상을, 김예나, 이화빈 학생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³, 학생들의 참여 열기는 뜨겁다. 대구국제고, 부산혜광고 등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점은 이 대회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적, 국제적 인재 양성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승택 회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까지 열사의 숭고한 뜻을 선사하고자 영어 웅변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³

4.2 조직의 물리적 확장: 뉴욕주지회와 글로벌 청소년단

사업회의 세계화 의지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직 건설로 이어졌다.

'뉴욕주지회'의 설립과 류혜경 지회장의 위촉¹은 사업회의 활동 반경이 한반도를 넘어 미주 한인 사회로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 동포 사회에 민족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유관순 정신을 세계의 중심지인 뉴욕에 알리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2019년 창립된 '유관순세계화청소년단(단장 이강일)'²은 미래 세대를 주축으로 국제적인 교류와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위 조직으로 풀이된다. 2020년 3월로 예정되었던 '제2회 유관순세계화국민대축제' 계획² 역시 이러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사업회가 유관순 정신을 'K-Spirit'의 일환으로 브랜드화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5. 네트워크와 지정학적 기반: 천안에서 전국으로

5.1 거점의 공간성: 천안시 신부동과 Dankook University

사업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터미널 인근에 물리적 사무국을 두고 있다.⁷ 천안은 유관순 열사의 생가와 아우내 장터가 위치한 역사적 현장이자,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회원들과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단국대학교와의 연계성도 포착된다. 단국대학교 웹사이트에 사업회의 전화번호(041-550-3149)와 팩스번호(041-559-7893)가 등재되어 있고, 문집 발간 교정·교열 사업 등의 실적이 언급된 점⁹으로 보아, 대학 내 연구소나 산학협력단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나, 사무국이 대학 시설을 일부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사업회의 활동이 학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뒷받침 한다.

5.2 전국 지부망의 구축

사업회는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탈피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연합회를 비롯하여 대전, 공주, 충남서부지회 등이 잇달아 결성되었다.² 이러한 지부의 확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립운동 선양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의 기록을 말단 조직까지 신속하게 전파하는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 이는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가 단순한 천안 지역의 향토 단체가 아니라,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NGO)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6. 결론 및 제언: 지속 가능한 계승을 향하여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에 대한 심층 연구 결과, 이 단체는 지난 20여 년간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확산시키는 데 있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서훈 등급 상향 운동의 성공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실질적인 법·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한 쾌거였다.

둘째,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20년 넘게 지속된 웅변대회는 수많은 청소년에게 애국심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실천적 교육의 장이 되었다.

셋째, 확장의 모델을 제시했다. 영어 웅변대회와 해외 지부 설립은 지역적 역사 인물을 세계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글로컬(Glocal) 전략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다. 현재 웅변대회 중심의 청소년 사업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문법에 맞게 유튜브, 솟폼, 메타버스 등의 뉴미디어 콘텐츠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뉴욕주지회 외에도 유럽, 아시아 등지로 해외 네트워크를 다변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의 이러한 끊임없는 진화와 혁신 노력은 100년 전의 '만세 소리'를 오늘날의 '희망의 함성'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1.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 33인 이사 위촉식 및 기념식수 거행 - 엠뉴스, 12월 21, 2025에 액세스, <http://www.cmni.news/news/articleView.html?idxno=57254>
2.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 2019년 송년회 가져 - 엠뉴스, 12월 21, 2025에 액세스, <http://www.cmni.news/news/articleView.html?idxno=51552>
3.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 유관순애국청소년 전국웅변대회 개최 - 엠뉴스, 12월 21, 2025에 액세스, <http://www.cmni.news/news/articleView.html?idxno=64681>
4.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 공모전 등 각종 정보, 12월 21, 2025에 액세스, https://friend.sen.go.kr/cop/bbs/selectArticl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1229&menuNo=4060000&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at=
5.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 주관 '제21회 애국청소년 전국 웅변대회' 성료 - 시사코리아저널, 12월 21, 2025에 액세스, <http://www.korea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03>
6.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 '애국청소년 전국 웅변대회' 개최 | 세계일보, 12월 21, 2025에 액세스,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103519541>
7. [추천여행기 < 여행리포트 >] - 천안시청, 12월 21, 2025에 액세스, https://water.cheonan.go.kr/prog/SiminReporter/tour/sub04_03/view.do?pageIndex=48&rotNo=4374
8. [관광체험기 < 여행리포트 >] - 천안시청, 12월 21, 2025에 액세스, https://mng.cheonan.go.kr/prog/SiminReporter/tour/sub04_01/list.do?pageIndex=205
9. 주요사업 실적 및 현황 - DKU 인문과학연구소 - 단국대학교, 12월 21, 2025에 액세스, <https://www-t.dankook.ac.kr/web/ins41/-1>